

고갈 자원과 무질서도의 제동

- 유한 자원: 궁극적으로 고갈
- 재생(renewable) 자원
 - 재생 속도의 제동
 - 생물 자원: 수용능력의 제동 (출생과 성장의 제동)
 - 태양에너지: 지구 물리 상태 변동의 원인, 생물자원의 원천
 - 조력 발전: 연안 물리 상태와 생태계 변동의 원인
- 에너지 이용(변환)의 증가
 - 무질서도 증가의 제동
- 무한 편의 증가를 추구하는 문명의 귀결점
 - 최대 무질서도: 지구 생명 부양 체계 붕괴

18

V.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생태계 물질 순환의 본질

- 저장고: 생태계 내 물질의 거의 전부는 생물 공동체 내 순환의 고리 밖에 존재
- 태양에너지의 거의 전부는 생물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유지에 투입
- 무에 가까운 극히 적은 일부의 무기물질이 생물공동체 내 순환의 고리에 잠시 머물다 순환 고리 밖의 저장고에 머물 때 안정하게 보이는 생태계 순환이 지속

20

VI. 자연과 인간의 공존 철학

자연의 순리에 따라 힘겹게 살던 인간종이 직립보행으로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도구를 사용하고 지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신체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지구 생태계 구

성원 중에서 유일하게 한계가 없는 듯 자연의 존재를 자원으로 이용하고 에너지를 이용하는 문명을 이루었다. 최근까지 그러한 천부의 능력으로 지구를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을 누렸지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 열역학 제2 법칙 등 진정한 자연의 순리로 인해 궁극적으로 지구를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꿀 것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류는 여전히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추상적 해결책에 안주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자원 사용량의 무한 증가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본질적인 허구가 들어있다. 경제 성장을 전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허구성은 생태계의 지속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 생태계에서 생물공동체 내의 물질 순환의 지속은 절대 다량의 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경이로운 생명체들이 보여주는 생태계의 조화는 무에 가깝게 소량으로 존재하는 생명체의 경이 밖에 거의 영구적으로 머물러 있는 실질적인 전부인 무기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만물의 영장으로 자처하는 인간이 구가해온 이기적인 문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물공동체 중 절대 다량의 비인간 생명체가 인간 문명에 구속되지 않고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생태계에서 무기물질과 비인간 생명체의 실질적인 전부는 인간의 문명 밖에 인간의 이익관심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영속을 위해 신체의 한계 내에 머무른 듯 비인간 생명체와 무기물질을 부족하게 이용하는 모자람의 지해를 깨닫고, 비인간 생태계 구성원의 존재를 인간에게 길들이려 하지 않으며 인간의 이익관심에서 벗어나 그저 그러하게 존재하는 상태로 받아들이는 무심의 공존 대상으로 존중해야 한다.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인간에게 소소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자연이 인간과 공존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그러하게 그 자리에 인간과 교류하지 않고 존재하는 무심의 공존이 있을 때만 인간 문명이 만들어내는 온갖 부작용의 병폐가 절대 다량의 비인간 생태계 구성원 속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흡수되어 슬그머니 사라질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이 무심의 공존을 할 때 인간이 희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

2020 한국철학자연합대회

인쇄일 2020년 10월 22일

발행일 2020년 10월 23일

발행인 이종원(한국철학회 회장)

총괄인 홍윤기(한국철학회 연구위원장)

편집책임 양희주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철학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42 현대기림빌딩 1010호

Office. 070-7762-7741 Mobile. 010-4763-7609 E-mail. kpa1004@gmail.com

편집 및 인쇄 (주)에이퍼브

Office. 02-2274-3666

